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닭 기르기 100문 100답

## II. 사양관리편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양계현장에서 농가가 필요로 하는 기술 분야의 질의사항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가 답변한 '축산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닭 기르기 100문 100답집'을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육종, 번식, 종자보존과 관리, 사양관리, 항생제 대체제 이용, 계사시설과 환경관리, 품질관리, 위생과 질병, 경영관리 등 양계의 다양한 분야에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본고는 이 책자 내용 중 육계분야에 대한 내용을 발췌하여 게재한 것이다.



### Q1 육추기간 동안의 적정온도 판단 요령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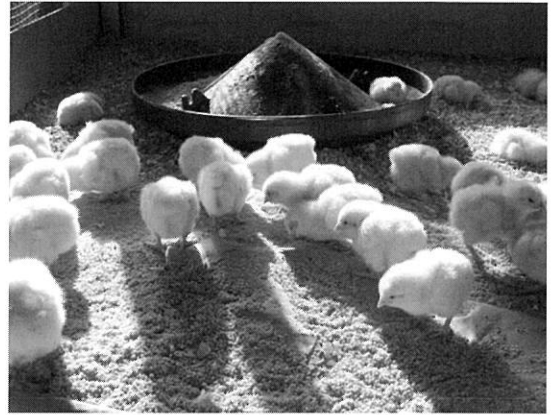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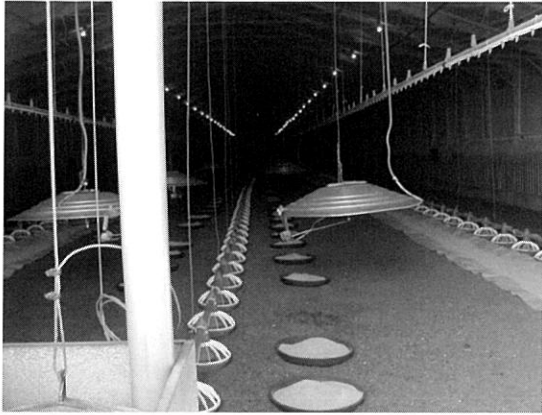
온도계는 병아리의 등 높이에 설치하여 측정하지만, 병아리의 분포상태와 행동이 가장 정확한 지표이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는데,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밤낮의 기온차와 고온 및 섯바람 등이며, 이중 섯바람은 외부와의 틈새에서도 생기지만, 계사 내 온도와 병아리가 있는 곳의 온도차가 10℃를 넘으면

공기의 대류가 발생하여 생기기도 한다.

육추온도가 고온일 경우 병아리는 열원에서 멀리 떨어지고, 입을 벌리고 헐떡이며 호흡이 빨라지고, 목을 길게 빼고 늘어지며, 날개를 벌리게 된다.

저온인 경우에는 열원이 공급되는 곳으로 모이며, 목을 움크리고 모여 들며 서로 밀에 들어가려고 쭈셔 박으며, 우는 소리가 크며, 우모가 거칠고, 폐사가 발생한다.

적온은 균일하게 분포되어 활동하며 밀집하



지 않으며, 활동이 자유롭고 활발하며 건강하게 보이고,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가금과 김지혁)


## Q2 어린 병아리 사료는 어떻게 급여해야 하나요?

부화 마지막 단계와 발생 초기에 병아리는 난황을 통해 모든 영양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잔류 난황에 최초 3일간 영양소와 모체이행항체를 안정적으로 보관한다.

난황의 흡수는 성장보다는 항상성의 유지에 있기 때문에 병아리가 사료를 먹기 시작할 때까지 성장은 최소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1일령이나 2일령 혹은 3일령까지도 사료를 섭취하지 못한 계군은 균일도가 낮고, 질병감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화 후 가능한 한 빨리 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병아리가 농장에 입추되면 작은 크럼블 혹

은 소형 펠릿 형태의 어린 병아리 사료를 급이거나 종이 위에 공급해주는데, 부화 후 가급적 빨리 사료를 섭취하도록 하면 성장을 촉진하게 된다. 입추 초기에는 바닥 위치에서 사료를 찾고, 4~6일령 사이에 팬 급이거나 체인 오거 급이기 등의 자동화 급이 시스템에서 다시 사료를 섭취하게 된다. 이후에는 10일령에 크럼블 사료나 소형 펠릿에서 펠릿 사료까지 섭취하게 된다.

입추 계군이 변화에 잘 적응하고 환경이나 영양적인 요소에 의해 성장이 저해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7일령 체중은 입추 시 병아리 체중에 비하여 4.5~5배가 되어야 한다. 7일령 체중은 정기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목표 체중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금과 김지혁)